

# 벤츠 순수 전기차 SUV 베일 벗다

### ‘더 뉴 EQE SUV’ 세계 첫 공개...자체 개발 플랫폼 전기차 실용적인 공간·첨단 디지털 요소 갖춘 인테리어 눈길 고성능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SUV’도 공개 2개 전기 모터·사륵구동 시스템으로 AMG 특유 주행 제공

메르세데스-벤츠가 최근 ‘더 뉴 EQE SUV’ (The new EQE SUV)와 고성능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SUV’ (The new Mercedes-AMG EQE SUV)를 공개했다.

더 뉴 EQE SUV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적용한 모델이다.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실용성 높은 실내공간, 럭셔리 콤포트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사양으로 편안함까지 모두 갖췄다는 게 벤츠의 설명이다.

함께 공개된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SUV는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의 첫 번째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이다.

◇실용성을 강조한 넉넉한 실내 공간-더 뉴 EQE SUV-더 뉴 EQE SUV는 스포티한 SUV의 특성을 갖추면서 차량의 기능 및 미학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완성했다.

더 뉴 EQE SUV의 외관은 메르세데스-EQ 패밀리 룩과 함께 공기역학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다.

프론트 액슬 앞쪽에는 특허 출원 예정인 새로운 휠 스포일러가 적용됐으며, 다양한 세부 요소를 통해 앞바퀴로 공급되는 공기 흐름을 개선했다.

특히 세밀한 공기역학적 요소가 포함된 차량 하부는 큰 부피와 짧은 리어 오버행에도 우수한 공기 저항계수를 자랑한다.

대형 전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더 뉴 EQE SUV의 인테리어는 디지털화된 요소와 동급 최고 수준의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다는 평가다. 5인승 모델의 1열과 2열의 시트 헤드룸 모두 1000mm 이상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 뒷좌석은 4대 2대 4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다. 트렁크는 520ℓ의 기본 용량과 함께 2열 폴딩 시 최대 1675ℓ의 적재공간을 갖췄다.

더 뉴 EQE SUV는 총 10개의 모듈로 구성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해당 배터리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와

기본 탑재된 히트 펌프와 함께 지능형 열 관리 시스템에 통합돼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더 뉴 EQE SUV는 전륜의 4-링크 서스펜션과 후륜의 독립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구성되며, 댐핑 조절 시스템 ADS+(Adaptive Damping System+)가 적용된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AIRMATIC air suspension)이 선택사양으로 제공돼 차량 지상고를 최대 25mm까지 높일 수 있다.

또 ESP (차량자세제어장치), 서스펜션 및 스티어링까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LECT)가 적용됐다. 에코(ECO), 콤포트(COMFORT), 스포츠(SPORT), 인디비주얼(INDIVIDUAL) 모드 외에 EQE SUV의 사륵구동 모델은 선보인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오프로드(OFFROAD) 모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유지 어시스트, 속도 제한 어시스트 등이 포함된 벤츠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메르세데스-AMG만의 감성·첫 고성능 순수 전기 SUV-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SUV의 외관 디자인은 AMG 디자인 요소를 포함해 역동적인 비율과 스포티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 크롬 수직 스트럿과 함께 메르세데스 스타 로고 및 AMG 레터링이 통합된 AMG 전용 EQ 블랙 패널, AMG 엠블럼이 적용된 보닛 위의 새로운 브랜드 전용 배트 등 AMG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반영했다.

AMG EQE SUV 모델의 배터리는 더 높은 전류에 최적화됐다. 90.6kWh 용량의 배터리는 총 360개의 파우치 셀이 있는 10개의 모듈로 구성됐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콤포트(Comfort)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더 긴 주행 거리를 위해 설계된 반면, 스포츠(Sport) 및 스포츠 플러스(Sport+)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퍼포먼스를 위해 특별히 AMG에 맞게 조정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최근 공개한 ‘더 뉴 EQE SUV’의 모습. 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적용한 모델로,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갖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더 뉴 AMG EQE SUV는 AMG 퍼포먼스 4매틱(MATIC)+를 탑재해 주행 상황에 따라 프론트 액슬과 리어 액슬 간의 지능적이고 가변적인 토크 분배 능력을 갖췄다. 기계식 사륵구동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응답성을 갖췄으며, eATS(전기 모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차체의 움직임은 전기 기계식으로 조정하는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AMG ACTIVE RIDE CONTROL)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AMG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AMG high-performance braking system)도 탑재됐다.

이밖에 AMG 다이내믹 셀렉트(AMG DYNAMIC SELECT)는 슬리퍼리(Slippery), 콤포트(Comfort), 스포츠(Sport), 스포츠+(Sport+), 인디비주얼(Individual)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편안함부터 스포티함까지 다양한 주행 감성을 제공하도록 했다. 모터, 출력, 서스펜션, 스티어링, AMG 다이내믹스, AMG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주행 프로그램에 맞춰 차량이 설정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출고 3년 벤츠 무상 점검 서비스

### 내달 19일까지 ‘클래식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출고 3년 이상 된 벤츠 차량 소유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전하는 ‘2022 클래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022 클래식 캠페인’은 2019년 11월19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벤츠 차량을 3년 이상 소유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캠페인 기간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서비스 대상 고객들에게는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문 테크니션의 점검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모든 벤츠 순정 부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엔진 오일과 타이어, ‘액세서리 & 컬렉션’ 제품은 제외다.

이밖에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Mercedes me Digital Assistant) 무상 장착 혜택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메르세데스 미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017년 이전 모델 차량 소유 고객들도 디지털 연동 차량 관리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온라인 결제’를 활용하는 고객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G-Class 탐험로도 제공된다.

이번 ‘2022 클래식 캠페인’은 전국 76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 내 가까운 서비스 센터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속도 올리고 손은 내리고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인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네시스 G90 모델.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제네시스 G90 연식변경모델 출시...자율주행 시속 80km로 상향·‘레벨3’로 핸들 놓고 달려

현대차그룹이 처음으로 출시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8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말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HDP·Highway Driving Pilot)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다.

현재 양산된 차들은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에도 스티어링휠에 손을 올려놓고 있어야 하며, 손을 잠시 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이번 G90에 탑재되는 레벨3 자율주행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주행한다.

전국 고속도로와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G90의 레벨3 자율주행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해 초 자율주행 레벨3 G90 출시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속도를 60km/h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80km/h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발 중인 차량 및 기술에 대한 상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에초 G90이 글로벌 차종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인 60km/h로 제한하려 했지만, 국내에 속도 제한 규제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해 최고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레벨3의 제한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G90의 자율주행 최고속도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의 자율주행 사용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0km/h로는 고속도로는커녕 자동차전용도로도 제대로 주행하기 어려웠지만, 80km/h까지 상향되

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리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G90은 기존 레벨2 자율주행차보다 향상된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개선된다.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같은 상황에서 레벨2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레벨3 자율주행차의 첫 국내 출시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의 제도도 완비됐다. 자율주행 레벨3 주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한 뒤 제작 결함이 확인되면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레벨3 주행 중 시스템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 운전자가 개입을 요청했지만, 운전자가 제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도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중 운전석에서 책을 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잠을 자면 안되는 수준이 레벨3”이라며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청할 경우 즉시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마세라티, 잔존가치 80% 보장 ‘MVP’ 프로모션 진행

이탈리안하이퍼포먼스럭셔리 카 마세라티는 잔존가치를 최대 80% 보장하는 MVP(Maserati Value Promise)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MVP 프로모션은 마세라티가 중고차 감가율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이다.

르반데 GT 모델 구매 기준 1년 후 최대 80%, 3년 후 최대 60%의 잔존가치를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고가 차량의 중고차가 큰 감가 폭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라는 게 마세라티의 설명이다.

올해 출시되는 모델 한정 프로모션인 MVP 프로모션은 기블리 모델에 적용된다. 트로페오 모델은 제외다.

기블리 모델 구매 기준 1년 후 최대 75%, 2년



후 65%, 3년 후 55%의 잔존가치를 보장한다. 기블리 모델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높은 감가율로 수입차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에게 MVP 프로모션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세라티 MVP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8개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렉서스 ‘ES 300h’ 3년 연속 ‘올해의 차’

렉서스코리아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ES 300h’가 2022년 컨슈머사이트 소비자체험평가에서 3년 연속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체험평가는 소비자 전문조사기관인 컨슈머사이트가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중 하나다.

소비자가 새 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평가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차를 선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는 1년 이내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만족도(TGR) ▲초기품질(TGW-i) ▲비용대비가치(가성비·VFM) 3개 항목의 평가를 종합해 이뤄졌다. 렉서스 ES 300h는 제품만족도 1위, 비용대비가치 1위, 초기품질 3위를 받아 2022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렉서스는 컨슈머사이트의 ‘2022 자동차 기획조사’에서도 수입차 부문 ‘A/S 만족도’ 공동 1위



로 2019년 이래 4년 연속 A/S 만족도 부문 1위를 달성했으며, ‘초기품질(TGW-i)’과 ‘내구품질(TGW-d)’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강대환 렉서스코리아 상무는 “3년 연속 ES 300h가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은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품성과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